

<인문 1-1>

제시문 [가]는 데카르트 의 철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것들을 거짓으로 들러서 버리면 과연 나에게 남는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감각, 추리, 생각 등을 버린다고 결심할 때, 그는 자신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동안에 자신이 존재해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것들은 없다고 가상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곧 정신이고 하나의 실체다'라는 것까지 도달하게 되어 장소와 물질의 의지하지 않고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보기]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쇼핑한다."는 생각의 자리에 쇼핑이라고 바꾸어 패러디한 작품이다. 이는 무엇을 살지 고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과소비를 하고, 구매로 스트레스를 푸는 소비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문 [나]는 소원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소원도는 한 유리창 뒤에 상품들을 진열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물품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소원도 속의 사물과 사람들은 서로 소원도적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한다. 이는 사람들이 같은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호 체계, 가치의 위계 코드 즉 광고를 인식하는 데에서 실현된다. 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개인을 투영하도록 만든다. [보기]를 [나]에 대입해보면, [보기]는 사람들에게 쇼핑이라는 기호 체계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소비욕을 자극시키고 소원도 커뮤니케이션을 형성시킨다. 제시문 [다]는 10여년 징역을 살고 있는 어느 죄수자에 대해 말한다. 그는 다른 감방으로 옮기면서 쓸데없는 짐들을 챙긴다. 그리고 지팡이와 옷 한 벌로 숨을 거둔 어느 노승을 떠올리며 자신을 성찰한다. 그는 물건이 방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능보다 필요를 무한정 추구하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이치를 배운다. 반면 [보기]는 그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치를 배 가르쳐 주기보다 끊임없이 생산되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 소비자들을 자극시킨다.

[보기]에 담겨있는 다의적·다층적 메시지와 제시문 간의 미묘한 연결고리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각각의 제시문을 기계적으로 요약한 후 그것을 [보기]에 꿰어맞추려는 평이한 접근법을 쓰고 있다. 게다가 요약 자체가 핵심을 빗겨가고 있으며 다소 불필요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답안 구성이 전반적으로 산만하며 논지의 설득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글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기보다 어중간한 시점에서 멈춘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인문1-2>

[보기] 의 그림은 쇼핑을 해야 스스로가 존재한다는 문구와 함께 소비를 장려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는 제시문 [가] 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와 흡사한 문장을 지닌다. [가] 의 견해에 입각해 본다면 [보기] 는 단편적으로 [가] 의 견해와 유사하다. 비단 그림에 내건 문장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이유를 찾을 때 실생활에 있는 흔한 진리들을 맹목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고 쇼핑이라는 특정적 행동이라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 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순간에 자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고로, 존재의 이유를 쇼핑이라 규정한 것조차도 의심해야 비로소 자신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가] 의 견해에 상통하는 것이다. 결국, 존재 이유를 쇼핑에 국한시켰기에 그림의 문구와 이로써 의도하려 했던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다] 의 인생의 소박함을 추구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림의 문구는 역시 그의도를 이행하기 힘들 것이다. 인생살이외 소박함과 단출함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쇼핑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처음에는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리만 차지하는 불필요한 것이며 완물상지를 겪는다고 말하며 쇼핑의 가치를 부정한다. 살아가는 현실 또한 생산보다는 끊임없는 욕구만 늘어난다고 말하며 이런 현상의 결말을 겁데기만 남는다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다] 에 따르면 쇼핑과 같은 사람들의 소비는 오히려 겁데기만 남게 될까 두려워 더 줄어든 것이고 그림의 메시지는 그 효과과를 발하지 못 할 것이다. 반면, 소원도에 대해 설명하는 [나] 의 의견에 따르면 그림의 메시지는 소비장려라는 기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소원도는 여러 물건들 몇저 보이게 전시해 놓고 이를 보는 소비자의 욕구불만을 유도하고 결국 소비를 촉진한다. 그림의 문구도 마찬가지로이다. 인간의 본능이자 원초적 욕구인 생존을 존재에 연관시켜 쇼핑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소원도에 진열된 멋진 상품을 갖고 싶고, 이를 구매하듯이, 누구나 영위하고 싶은 존재의 필수조건을 쇼핑이라 정의하고 궁극적으로 쇼핑이라는 행위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소비 장려’와 ‘시장 활성화’라는 말로 [보기] 그림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제시문의 다양한 활용을 제한한다. 제시문들에 대한 이해 또한 아쉽다. 데카르트가 존재를 규정하는 ‘생각’ 이외의 것들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감안할 때, ‘생각’이 ‘쇼핑’으로 대체된 [보기]의 문구가 쇼핑 자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제시문 [나]는 소원도가 ‘소비장려’만을 위한 거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다] 역시 물질적 필요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인문1-3>

[문제 1] (1000±100자) 답안은 반드시 해당 답란에 작성해야 함(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할 경우 '0'점 처리)

[보기]의 메시지는 쇼핑, 즉 물건에 대한 소비를 참으로써 '나'라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제시문 (가)는 '나'라는 주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이론이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생각하기 때문에, 즉 정신이 '나'라는 주체의 본질로 존재하여 스스로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토대로 [보기]의 메시지를 볼 때, 쇼핑이라는 물질적인 측면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치 못하다. '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쇼핑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몰라도 내가 쇼핑을 하지 때문에 '나'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건 불가능하다.

제시문 (다)는 세속에 있는 화려한 물건이나 개화들이 외적인 측면만 추구하는 반면 인간 자기의 본성, 즉 내적인 특성을 잃게 만든다고 말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보기]의 메시지는 외적인 측면의 행위를 통해 자아가 존재하는 것은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 받게 된다. 획기적인 사고를 통해 이기를 생산하기 보다 필요 그 자체에만 충수되어 그것만을 무한히 만드는 사회 현상에서 쇼핑은 '나'를 다스리고 관수하지 못하게 하는 구걸치 못한 행위이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소비활동은 촉진시키는 소인도 상품이라는 물질적인 재화가 개인의 가치 형성을 형성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보기]의 메시지는 소인도 상품을 개인이 소비할 때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 개인은 소인도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욕구뿐만이었던 감정이 해소된다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러한 가치 형성을 통해 사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의사소통 및 합의적통을 한다. 즉 개인은 사회에 적응, 순응하면서 사회적으로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아의 존재가 촉진된다는 [보기]의 메시지에 대해 제시문 (가)와 (다)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제시문 (나)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각각의 제시문이 [보기]에 대한 반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둘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고 있어 글의 초점이 [보기]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수렴되지 않고 제시문들 속으로 분산되는 느낌을 준다. 제시문들 간에 유기적 연속성이 존재하는 까닭에 다행히 논지 전개가 크게 거북하지는 않으나 글의 충실한 갈무리에는 제약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 소원도가 강요 혹은 촉구하는 '적응성'과 '순응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보기]가 지적하는 쇼핑은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인문2-1>

제시문 (가)는 시대의 발전에 따른 친족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과거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의무를 현대에 들어서 상호간의 거래, 협상에 의해 규정되고 이에 따르는 헌신 또한 논쟁과 협의를 통해 설정된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가족'이라는 집합체의 연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부모는 아이를 잉태하며, 아이는 성인이 되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는 (나)의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그 새로운 생명이 자신의 조상과 같은 행위를 통해 '가족'을 구성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후손들의 의무감이 형성되고 연속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제시문 (나)와 다르게 '가족'과 '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성, 서로의 동일성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단순히 혈연적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감정, 추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관계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혈연적 관계가 아님과 동시에 시대적 변화로 인해 헌신의 이유가 확실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부는 자신의 재혼 배우자와는 서로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에 따른 헌신, 의무에 대한 설정을 명확히 하였으나 배우자의 자녀에게는 그 필요성과 의무감이 적거나 불명확하여 재혼 이후 스스로 사유를 들어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명확하게 현대사회 속 다변화된 '가족' 관계 '형성'으로 인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들에 대한 내용 파악은 대체로 무난하나 이들 제시문이 친양자제도 도입시 여기치 못했던 사회 문제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친양자 파악' 원인을 가족 개념의 변화와 관련 지은 것은 적절하나 더 나아가 이를 부모에게 요구하는 '의무'에 불명확성에 귀착시키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팽배한 가족에 대한 혈연중심의 가부장적 인식이 문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보기]의 암시가 보강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인문2-2>

[문제 2] (800±80자) 답안은 반드시 해당 답란에 작성해야 함(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할 경우 '0'점 처리)

[보기]의	입양	원	부분은	친양과	를	파양하는	이유가	제도가	평
확	외기	이	전에	예	정	되	있	면	친
양	과	의	태	을	,	양	부	모	의
보	다	양	부	모	의	이	혼	이	나
더	많	았	고	,	양	부	모	와	자
설	명	한	다	,	양	부	모	와	자
자	식	간	의	관	계	가	유	지	되
는	기	간	도	적	을	을			
이	러	한	현	상	이	발	생	하	는
이	유	는	과	거	에	보	편	적	으로
받	아	들	어	지	면	생	물	학	적
원	리	에	기	준	한	친	부	모	와
친	양	과	의	태	을	구	성	되	어
있	는	이	유	는	과	거	에	보	편
적	으로	받	아	들	어	지	면	생	물
입	양	과	의	태	을	원	인	으로	들
수	있	다	,	제	시	문	[나]	에	서
설	명	하	는	바	라	마	찬	가	리
로	,	여	자	가	각	자	각	자	의
아	이	를	양	태	하	고	충	분	하
는	과	장	물	거	외	지	않	는	가
족	의	행	태	는	부	모	와	자	식
의	연	속	성	의	관	계	가	유	지
관	계	를	오	랜	등	만	유	지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또	한	,
입	양	가	정	의	행	태	가	이	전
에	보	편	적	으로	받	아	들	어	진
가	족	의	행	태	와	다	르	고	,
이	러	한	입	양	가	정	에	서	가
족	간	유	대	감	의	심	질	이	이
전	과	달	라	져	새	로	운	유	대
감	을	충	분	하	는	정	부	를	파
양	의	원	인	으로	검	은	수	있	다
이	는	제	시	문	[가]	에	서	연	급
환	대	조	한	적	가	족	의	사	례
와	마	찬	가	리	로	가	속	가	의
신	리	는	구	성	원	들	끼	리	의
행	태	의	이	서	확	립	되	는	것
이	며	한	신	은	상	호	대	립	되
는	것	이	아	니	라	가	족	구	성
원	의	노	력	에	서	비	로	되	는
것	으로	바	뀌	어	입	양	가	정	이
이	러	한	신	리	를	행	성	하	지
물	렷	을	정	부	와	파	양	의	가
능	성	이	놀	아	짐	을	극	족	할
수	있	다	반	면	,	파	양	의	원
인	을	원	인	을	과	양	과	부	모
가	서	로	를	필	요	로	하	는	내
연	적	동	기	에	서	나	온	관	계
가	서	로	의	정	합	의	리	가	부
족	할	때	해	레	되	는	정	부	를
들	어	설	명	할	수	있	다	,	제
시	문	[다]	의	광	발	감	과	코	레
트	는	서	로	의	존	재	를	필	요
로	하	여	가	족	과	유	사	한	관
계	를	말	은	것	이	라	면	,	[보
기]	의	파	양	사	례	는	부	모	와
자	식	의	관	계	를	잇	는	서	로
의	존	재	의	필	요	가	사	라	권
것	이	다							

[보기]가 방기된 아동의 통상적인 입양과 파양이 아닌 '친양자입양'과 '친양자파양'이라는 좀더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것이라는 이해가 답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상호대립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비교 설명이 답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시문 [다]의 활용이 부족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친양자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미흡함이라고 판단된다.

